텅 빈 폐사지 풍경으로 전하는 조용한 위안

현을생 사진전 '옛 절터…' 흑백에 담은 빈 자리 미학
터에 남은 석탑과 불상 등 10여 년 전 그곳 여전할까
이달 5~11일 아트인명도암

현을생의 '화순 운주사지'. 미완성의 부처가 누워 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는 시간이 멈춘 듯한 텅 빈 폐사지에서 오히려 충만한 기운을 얻었다. 오랜 흔적이 밴 기단석과 같은 돌들이 과거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곳의 풍경은 고고했다. 세속을 초월한 고풍스러움은 번다한 삶에서 잠시 비켜선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달 5일부터 제주시 봉개동 아트인명도암에서 '옛 절터, 그 자리의 미학'이란 이름으로 개인전을 펼치는 현을생 사진가다.

현 작가는 서귀포시장, 제주도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고 지금은 사단법인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40여 년 공직에 몸담았던 그는 '제주성읍마을'(1990), '제주여인들'(1998), '풍경소리에 바람이 머물다'(2006) 등 사진집을 내고 다섯 차례 사진전을 열어온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다.

이번 출품작들은 10여 년 전부터 강원도에서 전라남도까지 옛 절터를 누비며 촬영해온 것들로 흑백사진으로 인화했다. 폐사지에 발을 디딜 때마다 메모해둔 단상을 바탕으로 작품마다 짤막한 글을 덧붙였다.

그는 스님과 중생 다 떠난 원주 법천사지에서 홀로 절터를 지키는 고목이 눈물겹게 다가왔다고 했다. 경주 감은사지에선 함월산 자락으로 넘어가는 해가 비치는 동·서 쌍탑과 마주하며 새삼 동양의 미를 발견한다. 예술의 극치를 경험하게 된다는 익산 왕궁리사지, 솔바람이 넘나드는 산청 단속사지 당간지주, 백만불의 미소를 지닌 충주 미륵사지 석조여래상, 아득히 먼 시간을 붙잡고 누워있는 화순 운주사지의 미완성 부처, 천년 절터인 서산 보원사지 강댕이미륵불 등도 카메라에 담겼다.

이름난 절터도 있지만 대부분 대중에게 덜 알려진 곳이다. 손길이 닿으면 자꾸만 덧나는 절터들이 안타깝다는 작가는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빈 자리의 미학이 사라지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창녕 관룡사의 야트막한 일주문처럼 곳곳에 흩어진 옛 절터들은 험한 코로나 시대를 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세를 낮추라는 조용한 가르침을 준다. 전시는 이달 11일까지. 문의 727-1253. 진선희기자

유년의 추억 담긴 제주어 창작합창곡

강문칠 작곡가 작곡 발표회 창작합창곡집 나란히 발간

제주 작곡가이자 음악평론가인 강문칠(사진)씨가 유년의 추억이 묻어있는 창작곡들로 겨울 무대를 따스하게 채운다. 이달 5일 오후 3시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제주어 창작합창곡 발표회'다.

이번이 여덟 번째인 창작합창곡 발표회는 '돌담에도 트멍이 이서사'란 제목을 달았다. 이날 발표되는 창작곡에서 따온 이름으로 코로나 시대 잠시 삶의 쉼표를 찍으며 살자는 노랫말 등을 담은 곡을 청중들과 나눈다.

발표곡은 17곡에 이른다. 제주시립합창단(현 제주도립 제주합창단) 지휘자 등으로 활동하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제주어 합창곡 중에서 대중들이 쉽게 따라부를 수 있는 곡들을 추려냈다. '호박사레 와수다', '꼼짝 꼼짝', '막 눈왐저', '생이총', '손심엉 가게', '몬딱', '곱을락', '코폴레기', '제주도' 등이다. 이들 합창곡은 전문 음악인들로 구성된 제주보컬앙상블(리더 강형권)이 실어나른다. 피아노 반주는 박지영이 맡는다.

강문칠 작곡가는 창작합창곡 발표회에 맞춰 40여 년 동안 창작한 80여 편을 한데 담은 합창곡집도 묶었다. 혼성합창, 여성합창, 남성합창, 동요 등이 실렸다.

강 작곡가는 "제주어 창작합창곡들이 한국 합창음악 발전은 물론 제주어 보전과 전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많이 불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그림훈판

<231>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ᄌᆞᆷ녜 ᄀᆞᆯ았저. "아고게, 고팡이 잘도 어두운게. ᄀᆞ만셔 보라. 우리 집인 모멀ᄏᆞ루가 웃어난 거 닮은디. 이디 모멀항 이신게. 이거 ᄀᆞ져당 ᄀᆞ룰 ᄀᆞᆯ아와사 퉤켜."

ᄋᆞ멩이 ᄀᆞᆯ멘. "누님- 아적도 고팡이 셔 낫구양? 고팡이 잘도 어두운게마씀. 모멀ᄏᆞ루 이레줍서. 나가 ᄀᆞ정 가쿠다."

ᄌᆞᆷ녜 ᄀᆞᆯ았저 "아니여. 모멀ᄏᆞ루 웃인게. 모멀 ᄀᆞᆯ아와사 ᄒᆞᆯ거난 이거 오고셍이 정지더레 갓당 놔뒤시라."

ᄋᆞ멩이 ᄀᆞᆯ멘. "예- 알앗수다."

하르바지 ᄀᆞᆯ멘. "ᄋᆞ멩이야- 누님 부름씨 ᄒᆞ염시냐? 모멀 ᄀᆞ정오랎구나게."

*** 제주어 풀이**

*ᄀᆞ만셔 보라 : 가만히 있어봐.
*모멀ᄏᆞ루(모ᄅᆞᆯᄏᆞ루) : <이름>메밀가루.
*웃어난 거닮은디 : 없었던 거같은데.
*ᄀᆞ졍 가쿠다 : 가지고 갈게요.
*오고셍이(오고생이, '우구셍이,우그셍이'의 작은 말) : <어찌>물건이 상하거나 수가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꼴. 옮길 때 마찬가지로 흩어짐 없이 고스란히.
*정지(정제,정짓) : <이름>부엌.
*부름씨(부룸씨, 부릅씨, 신ᄇᆞ름, 신바람, 심바람, 심부름) : <이름>심부름 남의 부림을 받아서 하는 일
*ᄒᆞ염시냐? : 하고있니?
*ᄀᆞ졍오랎구나게 : 가지고 오고 있구나.

고재만 화백

문화가 쪽지

제주대 교수작품전 '백록담'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교수작품전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델문도로스터스뮤지엄(제주시 연삼로 316)에서 열리고 있다.

'백록담'으로 이름붙여진 제주대 미술학과 교수작품전은 이번이 47회째다. 교수와 강사가 함께 참여해 평면, 입체, 영상 등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작업해온 지난 1년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다. 참여 작가는 김용환·박성진·강민석·손일삼·이창희·이승수 교수 등 30명이 넘는다.

백비 모티브 미디어아트전

문화기획단체 트리거가 제주문화자원 기반 공공예술 지원사업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인 '새털라이트(Satellite), 4·3 '공원''전을 열고 있다.

이달 4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되는 이 전시는 4·3평화기념관 백비를 모티브로 비어있는 공원을 꽃로 채우는 프로젝트다. 관객에게 가치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응답하면 작품이 완성된다. 마지막 날엔 콘테나 프로젝트, 밴드 투유(ToU) 공연도 열린다.

정랑회 문인화 작품전

정랑회(회장 강수영)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한 번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회원 43명이 참여해 문인화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정랑회 측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듯, 직장에서 은퇴 후 그림을 배우며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회원들의 열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5년 창립한 정랑회는 양태호 작가가 지도를 맡고 있다. 현재 65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성인장애인 작품 전시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오승태)은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엔 서예, 사군자, 퀼트 공예 등 80여 점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장애인들이 지난 1년간 열정과 의지를 불태우며 평생학습활동을 통해 탄생시킨 작품들이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평생학습교육은 2000년 개관 초부터 시작돼 장애인 등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소한 일상 품은 문학의 결 한순자 에세이 등 잇단 발간

문학에 대한 열정으로 삶에 새로운 희망을 그려가고 있는 이들의 창작집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문학회 작품집, 수필집 발간 등이다.

한순자씨는 '익숙한 바람맞이 3'을 통해 평범한 나날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냈다. 세탁업무에 종사해온 작가가 발견한 소소한 일상의 힘이 전해진다.

정복언씨는 수필집 '뜰에서 삶을 캐다'를 묶었다. 대화할 때 주로 듣는 편이라는 정 수필가는 "눈가를 적시는 풍경에 살맛을 만난다"고 했다.

고경희씨는 '삶의 향기-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를 펴냈다. 퇴임 후 10여 년 동안 마음 안에서 숨쉬었던 삶의 조각들을 엮었다.

제주국보문인협회는 '제주국보문학' 창간호를 출간했다. 대정현문학회의 '대정현문학' 5호, '제주의 숨결'을 테마 수필로 정한 제주수필과비평작가회의 '제주수필과비평' 6호, 아람수필문학회의 '아람수필' 6호도 나왔다.

제주시 아라동 월두마을 부녀회의 '원두왓 낭송회'는 '우리도 글쟁이 뒈봅주'를 내놓았다. 회원들이 휴대전화에서 꺼낸 사진을 보고 느낀 감흥을 담은 디카시 등을 수록했다. 진선희기자

축 CONGRATULATIONS
개 업
건축사사무소 온도

건축사 김 현 정
(부 : 김승만 · 모 : 문애자)
건축사사무소 온도 개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안방계 찬숙문중회
회 장 김 용 찬 외 문중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훈
새마을훈장 자조장

강 창 주
(새마을지도자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
새마을훈장 자조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일동

축 CONGRATULATIONS
합 격
손해평가사

박 정 민
(처 : 강해생)
제6회 손해평가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처가 가족 일동
(김복선 강순자 강남수 김진부 강명호)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勢(대세)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 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G마크'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